

방역수칙 위반 클럽 7곳 과태료... 故백기완 장례위도 변상금

서울시, 강남·서초구 일대 합동점검 클럽 11개소 중 7곳 방역수칙 위반 故백기완 장례위, 승인 없이 분향소

서울시가 자치구, 서울경찰청 등과 강남·서초구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합동점검에서 클럽 7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이들 업소에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2월 20일 새벽 시간대 민원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클럽 7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 선별진료실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유흥업소들은 ▲춤기 금지 ▲ 8㎡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클럽 7곳에 과태료 및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고 백기완 선생 분향소 설치 및 영결식 개최와 관련해 장례위원회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신고 절차 없이 지난 18일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차리고 이튿날 오전 11시 광장에서 영결식을 진행했다.

영결식의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명을 넘었는데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영결식 주최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서울 광장에 임의로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광장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장례위원회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변상금은 267만원이며, 부과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경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코로나19 주간 발생동향에 의하면 지난주(2월 14~20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87명으로 하루평균 169.6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이는 2주 전(2월 7~13일) 일평균 확진자 수 143.7명보다 18.02%(25.9명) 증가한 수치다.

최근 1주간 집단 발생 사례는 ▲의료기관 관련 126명 ▲체육·사우나시설 관련 87명 ▲직장 관련 27명 ▲요양원·시설 관련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민 카드 소비액 감소... 오프라인 ‘뚝’ ‘새 광화문광장’ 동측도로 내달 양방향 통행

지난 1년 카드 소비액 116조... 3% ↓ 온라인 소비 3.9조... 18.4% 늘어

서울 시민의 지난 1년 카드 소비액은 116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소비는 3조 9000억원가량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소비는 7조 4000억원 줄었다.

서울시는 2020년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카드 소비액은 116조3188억원으로 2019년 119조8119억원과 비교해 2.9%(3조4931억원) 줄었다.

온라인 소비는 3조8757억원(18.4%) 늘었고, 오프라인 소비는 7조3689억원(7.5%) 쪼그라들었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사의 가맹점 매출액(작년 1월 6일~12월 27일까지)을 바탕으로 관내 62개 업종의 상품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한식업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조5908억원(18.2%) 감소해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가 설 준비를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타격이 가장 컸다. 이어 기타요식 1조 1457억원(15.3%), 학원 5411억원(14.2%), 의복·의류 5140억원(20.1%), 양식 4019억원(22.8%) 순으로 매출 감소액이 많았다.

감소율로 따지면 면세점 82.4%(2217억원), 여행사 64.6%(974억원), 종합레저시설 53.9%(105억원), 유흥주점 52.9%(3266억원), 기타 유흥업소

51.8%(2039억원)의 매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

행정동별로는 역삼1동, 서교동, 신촌동에서 3000억원 이상 매출이 급감했다. 이어 명동, 삼성1동, 종로1·2·3·4가동, 잠실3동, 소공동에서 2000억원 넘게 매출이 줄어 상업 업무지역에서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서측 도로는 광장으로 흡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기존 5개 차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6일부터 양방향 통행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해온 새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따른 조치다.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시작되면 현재 하행(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차량이 오가는 서측 도로(세종문화회관 앞)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광화문 삼거리와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을 통행하는 상·하행 차량 모두 동측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측 도로는 광장으로 흡수돼 보행길로 바뀐다. 시는 서측 도로가 편입될 광장에 대한 매장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광장 바닥포장 정비, 수목 식재, 해치마당 리모델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 공사기간을 전후로 교통 흐름을 분석한 결과 착공 직후 일시적으로 통행 속도가 조금 감소했지만 교통정체



광화문광장 조감도 모습. /서울시

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현재는 예년 수준인 약 22km/h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앞으로도 현 수준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하문로, 서소문로 등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6개 도로 13개 교차로와 공사 영향권 내 65개 교차로의 신호를 조정,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월 말 세종대로와 만나는 사직로, 율곡로에서 주변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동선이 새롭게 열린다”며 “사직공원 교차로에서는 사직로와 사직로8길 양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고, 경복궁 교차로(율곡로, 동삼자각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뒤편 종로1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배달특급’, 디지털 인프라 구축 확대 운영

경기도 내달까지 POS 단말기 지원

‘배달특급’이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POS 단말기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2차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결합해 물품 계산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산과 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 기기이다.

이번 사업은 ‘배달특급’에 가입하고 싶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돼 가입하

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고 지난 2월 14일까지 1차 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는 8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1차 지원 때와 달리 모집대상을 ‘배달특급’ 서비스가 예정된 28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배달특급’과 주문 연동이 가능한 최신형 POS와 기타 IC카드 리더기, 서명패드와 유선카드 단말기 등 POS 시스템 일체를 설치해준다.

단, POS 단말기 보급 시 최대 20만원의 가맹점 부담금이 있고 보급받은 POS의 재판매는 불가하며 ‘배달특급’의 입점이 필수조건이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고양시 한예종 유치 두팔 걷었다

고양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힘이 모았다. 지역 학부모단체의 SNS 릴레이 챌린지 등 시민들로부터 시작된 유치 염원 활동이 빠르게 확산되며 한예종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 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회장 임경희)는 지역 곳곳에 한예종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데 이어 최근의 인택트 경향을 반영, SNS로 활동 무대를 넓혀 ‘한예종 고양시 유치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 등이 릴레이로 참가해 주목을 받고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23일 (화)

음력 : 1월 12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12 | 해질 / 18:20

연천 -8/5

동두천 -7/6

가평 -7/6

파주 -8/4

서울 -5/5

양평 -6/6

인천 -5/3

수원 -5/5

용인 -5/5

평택 -6/5

백령도 -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